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산 넘고 물 건너 문화소의 지역 찾아 갑니다



지난 14일 여수 소두라도
어르신들이 ‘예술선’에
서 명패를 만들고 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일환으로 찾아
가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펼치는 ‘예
술버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제공>

지난 14일 여수 앞바다 작은 섬 소두라도에 병원선이 찾아왔다. 매번 찾아오는 순회진료지만 이날은 분위기가 달랐다. 진료를 마친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병원선 안 조그만 방에 모이기 시작했다. 알록달록 색종이로 꾸며진 방에는 각종 공구와 재료가 놓여있는 테이블이 있었다. 한자리씩 차지한 어르신들은 강사 지시에 따라 명패를 만들기 시작했다. 동그란 나무토막에 정성껏 이름을 쓰고 줄을 매어 놓으니 그럴듯한 명패가 완성됐다.

이제 소망을 적어보는 시간도 갖는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싶다’,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000이 되고싶다’고 써진 게시판을 보고 한참 고민한 끝에 본인 이름을 써넣는 사람이 있어 웃음을 자아냈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에 참여한 어르신들이다. ‘움직이는 예술정거장’은 산골이나 어촌, 섬 등 문화소의 지역을 찾아다니며 공연, 미술, 제조 등을 제공하는 문화예술 체험교육이다. 예술가가 버스나 병원선을 타고 경로원, 학교, 마을회관 등을 방문해 어린이나 노인을 상대로 맞춤형 체험활동을 펼친다. 지난 2013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관으로 진행되고 있다.

원래 예술버스만 운행했지만 섬이 많은 전남지역을 위해 지난해부터는 병원선을 ‘예술선’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 결과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평소 접하지 못했던 체험프로그램은 입소문이 퍼졌고 참여 방법 문의가

오지·섬지역 문화예술 체험교육

14일 여수서 시작... 11월까지 진행

호남권 8월 19일까지 신청 접수

예술가와 함께 버스·병원선 타고

노인·어린이 미술·제조·사진 체험

끊이지 않고 있다. 예술선에서는 두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평생 누구 엄마, 누구 아빠로 불렀던 어르신들을 위해 본인 이름이 적힌 명패를 만들어보는 ‘나의 이름을 불러주오!’를 준비했다. 사람들에게 이름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들려주며 자존감을 회복하고 이웃 관계를 돈독하게 하기 위해 기획했다.

또 ‘동네방네 춤 메들리’는 섬주민 건강을 위해 음악에 맞춰 몸풀기 제조와 춤을 배우고 시낭송을 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산골이나 농촌 어르신들이 이용할 수 있는 예술버스에서는 ‘면사포 휘날리며’와 ‘속풀이 RAP 타령!’에 참여

할 수 있다.

‘면사포 휘날리며’는 턱시도에 나비넥타이, 드레스와 면사포를 쓴 부부들에게 웨딩사진을 찍어주며 특별한 추억을 선사한다.

‘속풀이 RAP 타령!’은 어르신들이 마음 속 이야기를 랩이나 타령으로 풀어내는 프로그램이다. 생소한 음악이지만 하고싶은 말, 평소 했던 생각을 음악에 맞춰 시원하게 끄집어낼 수 있는 시간이다.

지난 12일까지 신청 접수를 받은 어린이 예술체험(예술버스)도 각광받고 있다. 공연 감상 후 아트북을 제작하는 ‘살짝 쿵, 깜짝 쿵? 활짝 쿵!’, 형광 안료와 블랙라이트로 해저생물을 만드는 ‘해저탐험 : 야광물고기전’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특히 고래, 우주선 그림으로 외부 꾸민 버스가 인기를 얻고 있다.

예술정거장은 여수를 시작으로 11월까지 전국에서 약 150회 운영된다.

예술버스 호남권 신청은 홈페이지(artebus.arte.or.kr/2016)에서 8월19일까지 접수받는다. 선정되면 9월에 버스가 찾아갈 예정이다. 버스가 주차할 공간만 있으면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이 많을 경우에는 소외지역이나 문화예술 사업 혜택을 못받은 곳을 우선적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예술선은 오는 10월까지 병원선과 연계해 30회 운영된다. 문의 070-4938-1972.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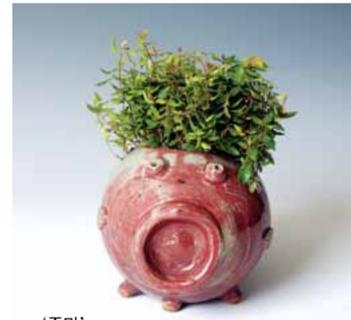
‘꽃을 품은 花器’

양갑수 개인전

30일까지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셴



‘좁마’

양갑수 전남과학대 화훼원예학과 교수가 담양 공예미술관 보임셴에서 30일까지 ‘꽃을 품은 화기(花器)’를 주제로 개인전을 연다.

보임셴은 올해 공예 기본 본질인 ‘쓰임새’를 담론으로 하는 ‘공예의 본질성 회복’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기(花器)작품을 선보이며 공예가 대중에게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자리다.

양 교수는 도자기 화분과 야생화를 비롯한 다양한 꽃들과의 만남을 작품으로 풀어냈다. 자칫하면 밋밋할 수 있는 화

기에 형태, 색감, 크기 등 다양한 변화를 줘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작품 ‘필레꽃’, ‘흔적’ 등은 두박하고 거칠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푸근함과 정겨움, 따뜻함이 담겨있다. 꽃을 직접 심어 작품을 완성시킨 것이 특징이다. 양씨는 광주, 서울 등에서 개인전 4회를 열었고 광주불꽃박람회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 미술대전 전통미술 공예부문 등 각종 대회 심사위원을 역임했다. ‘월적외선 방사 세라믹 화분 및 그 제조방법’에 대한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문의 061-383-6473. /김용희기자 kimyh@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최종 2인에 선정

김용철·설박 광주비엔날레 본전시 참여

김용철·설박 작가가 ‘2016 광주비엔날레 포트폴리오 리뷰프로그램’ 최종 2인에 선정돼 본전시 참여하게 된다.

여수 출신 김용철(34) 작가는 전남대학교 미술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독일의 국립 슈투트가르트조형예술대학 디플롬 과정에 있다.

김 작가는 작품을 통해 사회현상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했다. 예술을 무대 중심에 놓고 사회 현상을 예측하고 탐색하는 올해 광주비엔날레 주제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와 일맥상통해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 다양한 회화적인 표현방식을 구사하는 김 작가 작업은 예술가가 지녀야 할 자유로움을 극대화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 출신으로 전남대 미술학과에서 한국화를 전공한 설박(32) 작가는 실험적이면서도 감각적인 현대 수묵 산수화를 선보이고 있다. 화선지를 먹으로 염색한 후 조각 조각 중첩시켜 붙이는 콜라주 기법을 사용한 독자적인 작품관을



김용철

설박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작가만의 독창적인 산수화는 동원적이면서 추상적 형태가 돋보인다는 설명이다.

한편 지역 신진 작가 발굴을 위해 광주비엔날레재단은 지난 2012년부터 포트폴리오 공모를 진행했으며 올해부터는 명칭을 변경해 창작지원에 나섰다. 광주·전남 청년 작가 53명이 응모해 1차에서 12명이 선정됐다. 나머지 10명 작가는 비엔날레 기간(9월 2일~11월 6일) 로터스갤러리에서 진행되는 특별전에 참여한다. 문의 062-608-4338.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매일 마지막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 시낭송 콘서트

시·음악·연주와 함께하는 금남로 연가

- ◆ 일시 | 2016년 7월 27일 오후 6시
- ◆ 장소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최 | 세계조각·장식박물관
- ◆ 주관 | 광주 서구문화원(기획:김정희 시인)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062)222-0072, 226-5800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1층)

산업환경기기 & 기계부품 제조전문업체

최고를 지향하는 **친환경기업 YHBECO**

www.yhb.co.kr

YHB 이동식 에어컨 | 조리작업장/주방/산업현장 작업효율 증대!! | 체감온도를 낮춰 최적의 작업환경 보장!!

설치 장소: 조리작업장, 주방, 여름캠핑장, 골프연습장, 창고작업장, 산업현장, 음식점, 열처리장, 정비소, 고온작업장, 유리작업장, 기계실, 전선서버룸

▶ 쾌적하고 깨끗한 작업공간 연출
▶ 실내·외 어디서나 편리하게 사용
▶ 이동이 용이한 바퀴 형태
▶ 고온 및 습기에 강력

대한민국 우수중소기업 대통령 표창 수상기업 특별가 공급

전국 50개 지점망 이용 24시간 내 A/S

전국 각 지역 지점/대리점 모집

필터 교체가 필요없는 집진기

YHB (주)YHBECO / 주식회사 YHB / (주)YHB 토탈서비스

본사 및 영업본부: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2로 14 대동테크노타운 12차 501호 ☎ 02-2029-6400 / FAX 02-2029-6404
광주 운영점: 광주 광산구 하남산단7번로 7(오선동) ☎ 062-952-6633 **익산공점** 전북 익산시 석암로1길 4(용정동) ☎ 063-835-4771
www.yhbeco.com / www.yhb.co.kr E-mail: shh@yhb.co.kr / ecob400@hanmail.net

선착순 동·호지정 계약

동림동 프리미엄시대를 알리는 **광신프로그레스**를 지금 만나보십시오

광신프로그레스
GwangShin Apartment

동림동

계약금 5% 정액제

발코니 확장 무료시공

중도금 무이자

전세대 알파공간

광주가 꿈꿨던 퍼스트클래스 라이프 76㎡, 82㎡, 84㎡ 총 234세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본 아파트는 사후주택보증이 아닌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보증하는 안전한 달인 분양 아파트입니다.

문의 062-511-1141

시흥 1주에어치런 시흥 (주)광신종합건설